



Giving Korea

한국의 기부 규모

장윤주

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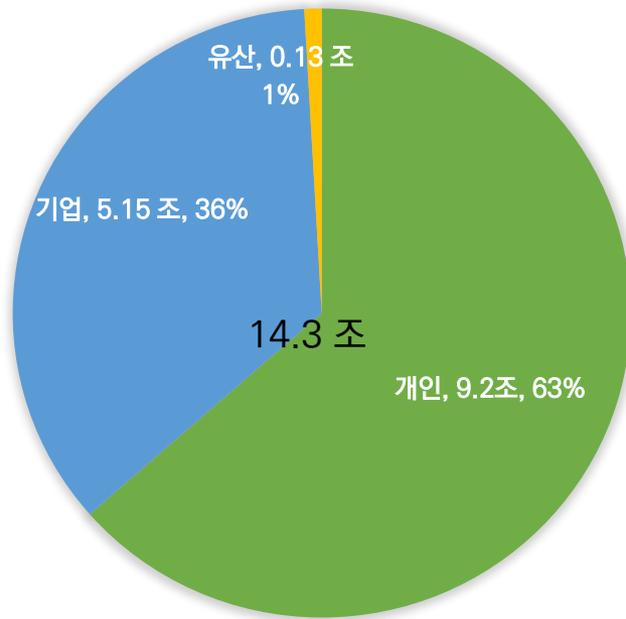
- 🍷 본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여 기부 인덱스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함.
- 🍷 Giving USA의 경우 개인, 기업, 재단, 유산기부 4개의 범주를 추적 조사를 하고 있음.
- 🍷 한국은 Giving USA와 같이 4개의 범주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, 이들이 기부규모 측정의 주축임을 인용함.
- 🍷 한국의 기부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**국세청 통계, 기빙코리아,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**(이하 DART)을 사용함.
- 🍷 각 범주별 데이터의 한계와 중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조사, 재정패널, 전경련 사회공헌 백서, 한국가이드스타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음.

1부. 총 기부 현황

1_1. 국내 기부 범주와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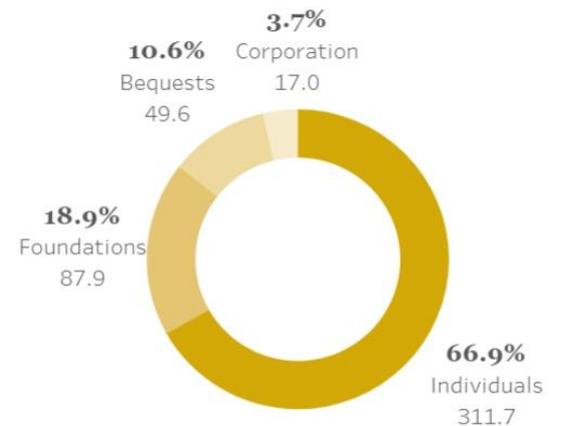
- ☎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, 2020년 기준 기부 총액은 14.4조 원
- ☎ 개인 기부금액은 9조2천억원, 기업 기부금은 5조1천5백억 원(개인 63%, 기업 36%)
- ☎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141만 원, 기업 평균 기부금액은 620만 원
- ☎ 유산기부는 1천 3백억 원으로 총 기부금 대비 0.09%, 개인 기부금 대비 1.42 %

총 기부 규모



출처 : 국세청 통계. 2020년

Contributions by source in billions of U.S. dollar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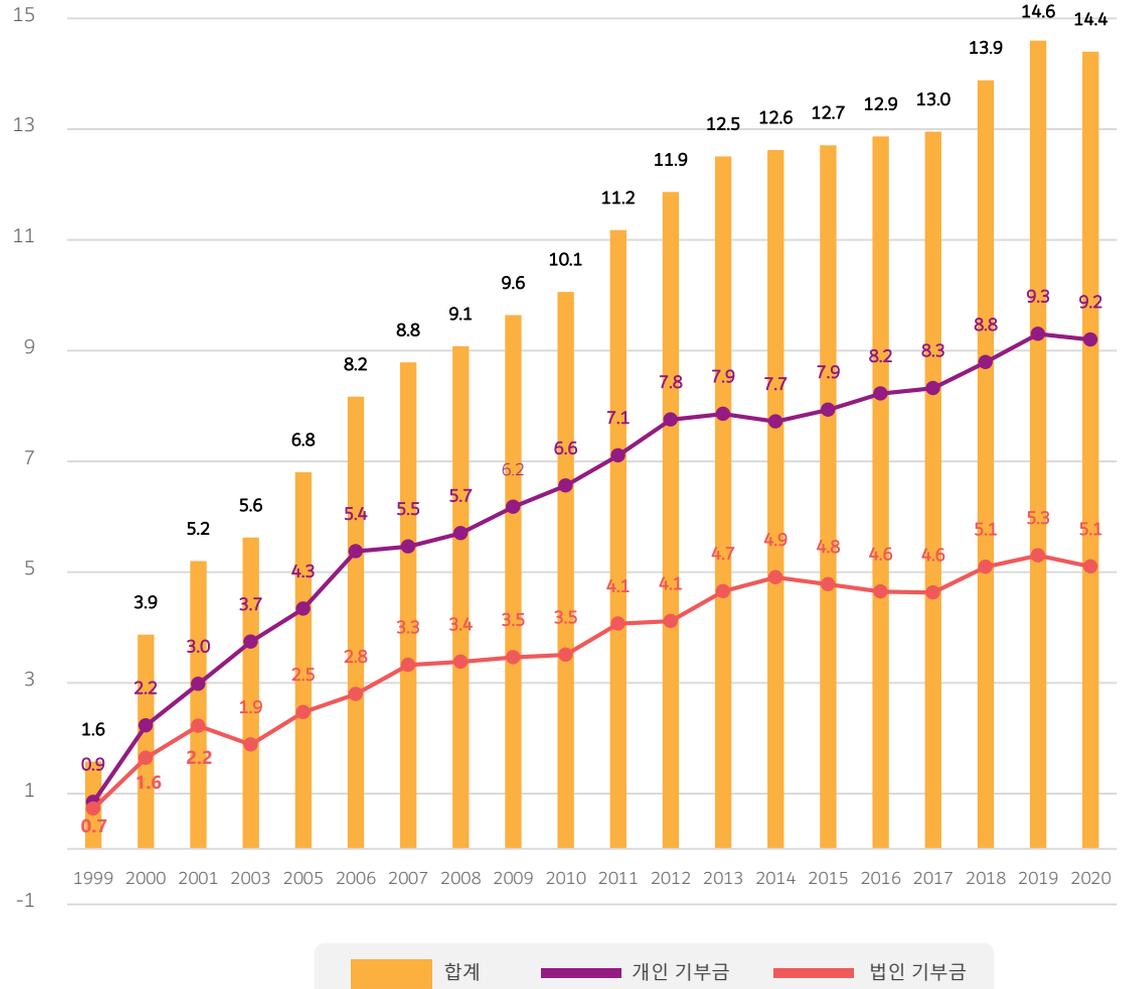
출처 : Giving USA

<https://givingusa.org>

1_2. 국내 기부 총액 - 연도별 변화

- 👛 2020년 기부 총액은 14.4조 원으로 2019년 14.6조보다 감소
- 👛 지난 20년간 개인과 기업 기부금 평균 비율은 개인 65%, 기업 35%.
- 👛 1998년 이후 개인 기부 총액이 기업 기부금을 상회

단위 : 조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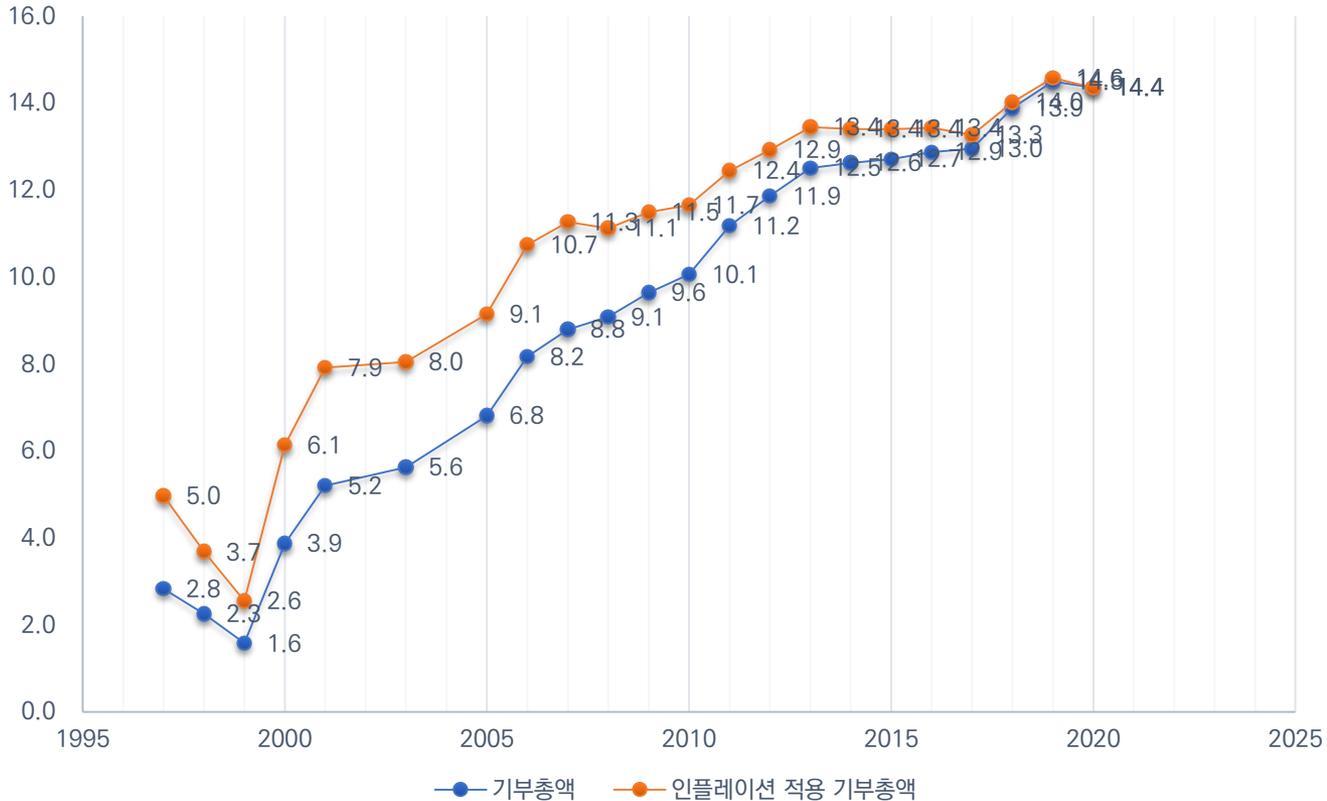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

1_3. 국내 기부 총액 - 인플레이션 적용

- ☞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상승을 시작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 부터 정체 또는 다소 하락
- ☞ 2017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소 하락
- ☞ 2013~2017년의 경우 총기부금액은 12.5, 12.6, 12.7, 12.9, 13조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나, 인플레이션 적용시 13.4, 13.4, 13.4 13.4, 13.3조 원으로 정체 또는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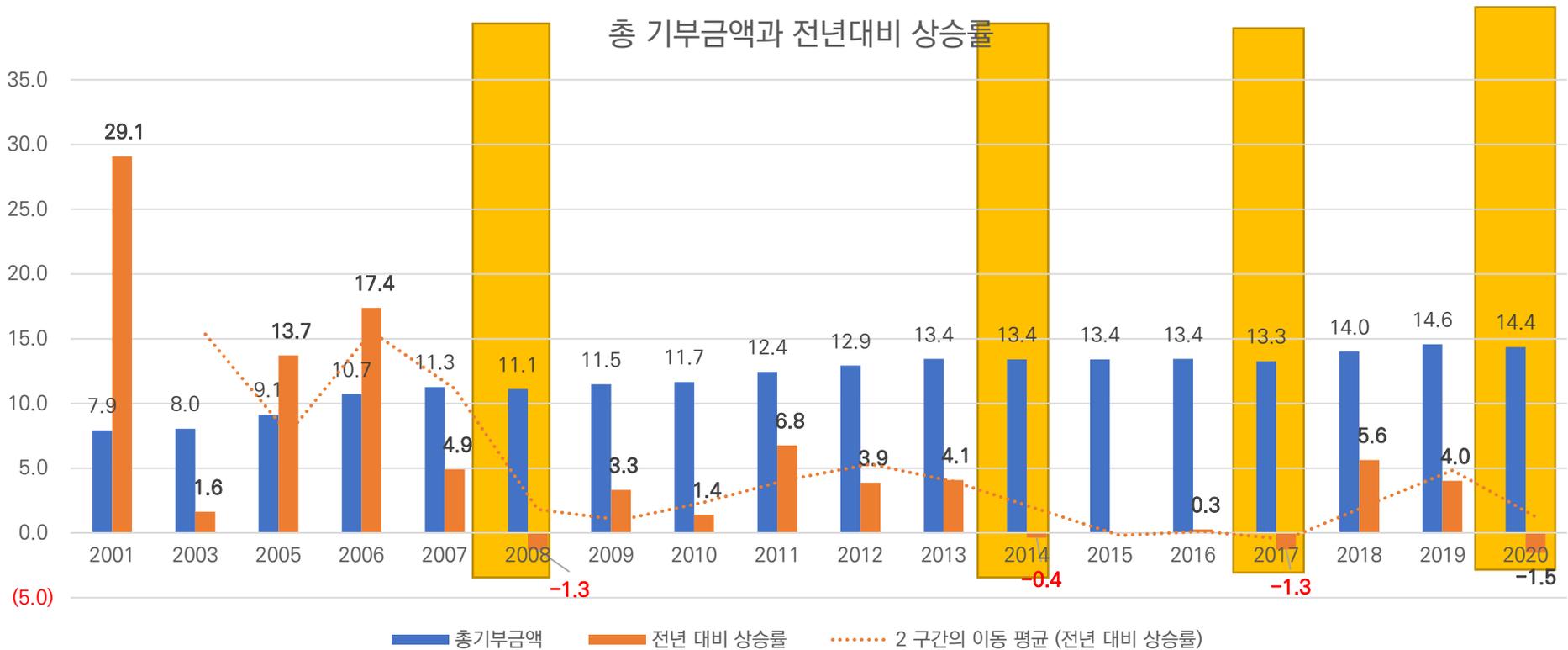
기부 총액 변화 추이


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1_4. 국내 기부 총액 증감 추이

- 기부 총액 상승률은 2000년 141.5%, 2001년 29.1%, 2005년 13.7%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 초반에는 1.4~6.8%, 2010년 중반 이후 0.3~5.6% 기록
-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으로,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는 2008년, 2014년, 2017년, 2020년
- 2008년은 경제위기,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각 0.4%, 1.5%포인트 하락
- 2014년은 개인 기부금 세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효과
- 2017년은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로 전 정부와 관련된 재단 스캔들과 새정부의 기업 기부 정책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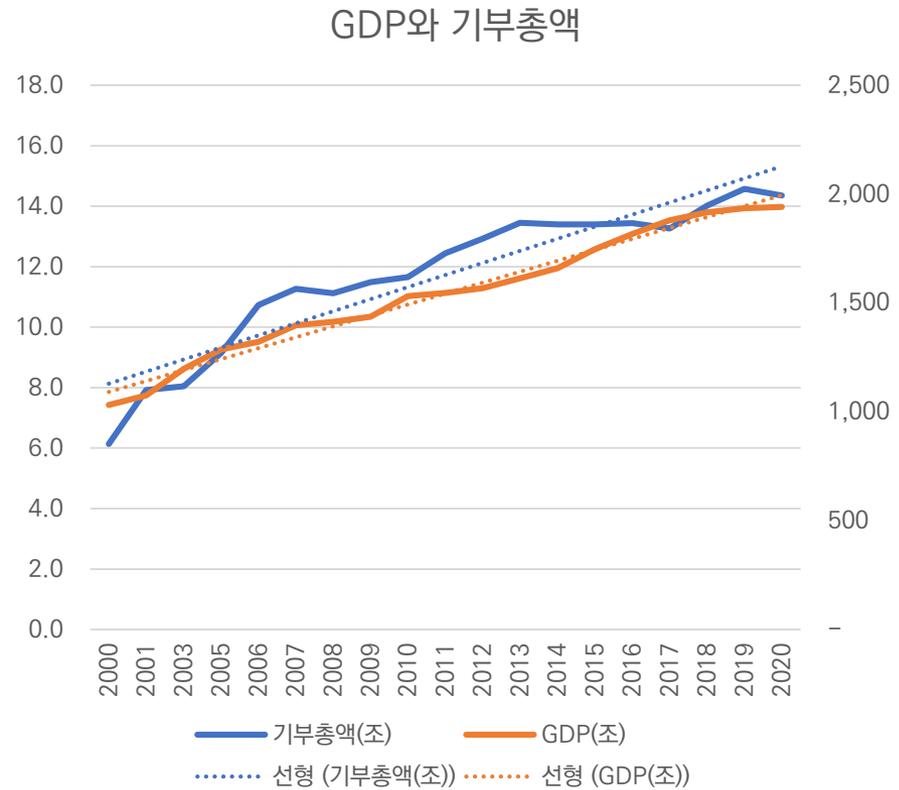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1_5. GDP 대비 총 기부금액

- 🍷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.6~0.8%
- 🍷 2020년 GDP는 0.3% 상승한 반면 기부금은 1.4% 하락하였으며 GDP대비 기부금 비율은 0.7%
- 🍷 동기간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1.9%~2.2%

| 연도 | 기부총액(조) | GDP(조) | GDP 대비 기부금(%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2000 | 6.1 | 1,032 | 0.6 |
| 2001 | 7.9 | 1,076 | 0.7 |
| 2003 | 8.0 | 1,198 | 0.7 |
| 2005 | 9.1 | 1,287 | 0.7 |
| 2006 | 10.7 | 1,322 | 0.8 |
| 2007 | 11.3 | 1,397 | 0.8 |
| 2008 | 11.1 | 1,413 | 0.8 |
| 2009 | 11.5 | 1,436 | 0.8 |
| 2010 | 11.7 | 1,531 | 0.8 |
| 2011 | 12.4 | 1,546 | 0.8 |
| 2012 | 12.9 | 1,568 | 0.8 |
| 2013 | 13.4 | 1,614 | 0.8 |
| 2014 | 13.4 | 1,659 | 0.8 |
| 2015 | 13.4 | 1,748 | 0.8 |
| 2016 | 13.4 | 1,817 | 0.7 |
| 2017 | 13.3 | 1,880 | 0.7 |
| 2018 | 14.0 | 1,916 | 0.7 |
| 2019 | 14.6 | 1,935 | 0.8 |
| 2020 | 14.4 | 1,941 | 0.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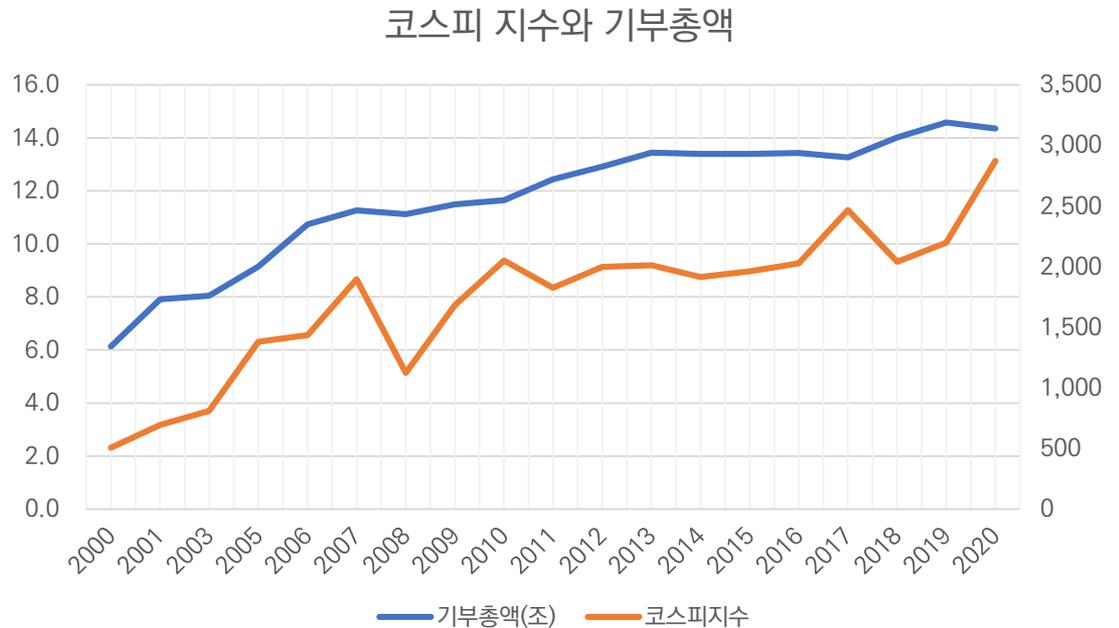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세청 통계. e-나라지표.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1_6. 코스피 지수와 총 기부금액

- 🍷 코스피와 기부금은 원만한 상승의 유사한 추이
- 🍷 2020년 코스피는 31% 상승, 기부금 1.4%하락

| 연도 | 기부총액(조) | 코스피지수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2000 | 6.1 | 504.62 |
| 2001 | 7.9 | 693.70 |
| 2003 | 8.0 | 810.71 |
| 2005 | 9.1 | 1,379.37 |
| 2006 | 10.7 | 1,434.46 |
| 2007 | 11.3 | 1,897.13 |
| 2008 | 11.1 | 1,124.47 |
| 2009 | 11.5 | 1,682.77 |
| 2010 | 11.7 | 2,051.00 |
| 2011 | 12.4 | 1,826.00 |
| 2012 | 12.9 | 1,997.05 |
| 2013 | 13.4 | 2,011.34 |
| 2014 | 13.4 | 1,915.59 |
| 2015 | 13.4 | 1,961.31 |
| 2016 | 13.4 | 2,026.46 |
| 2017 | 13.3 | 2,467.49 |
| 2018 | 14.0 | 2,041.04 |
| 2019 | 14.6 | 2,197.67 |
| 2020 | 14.4 | 2,873.4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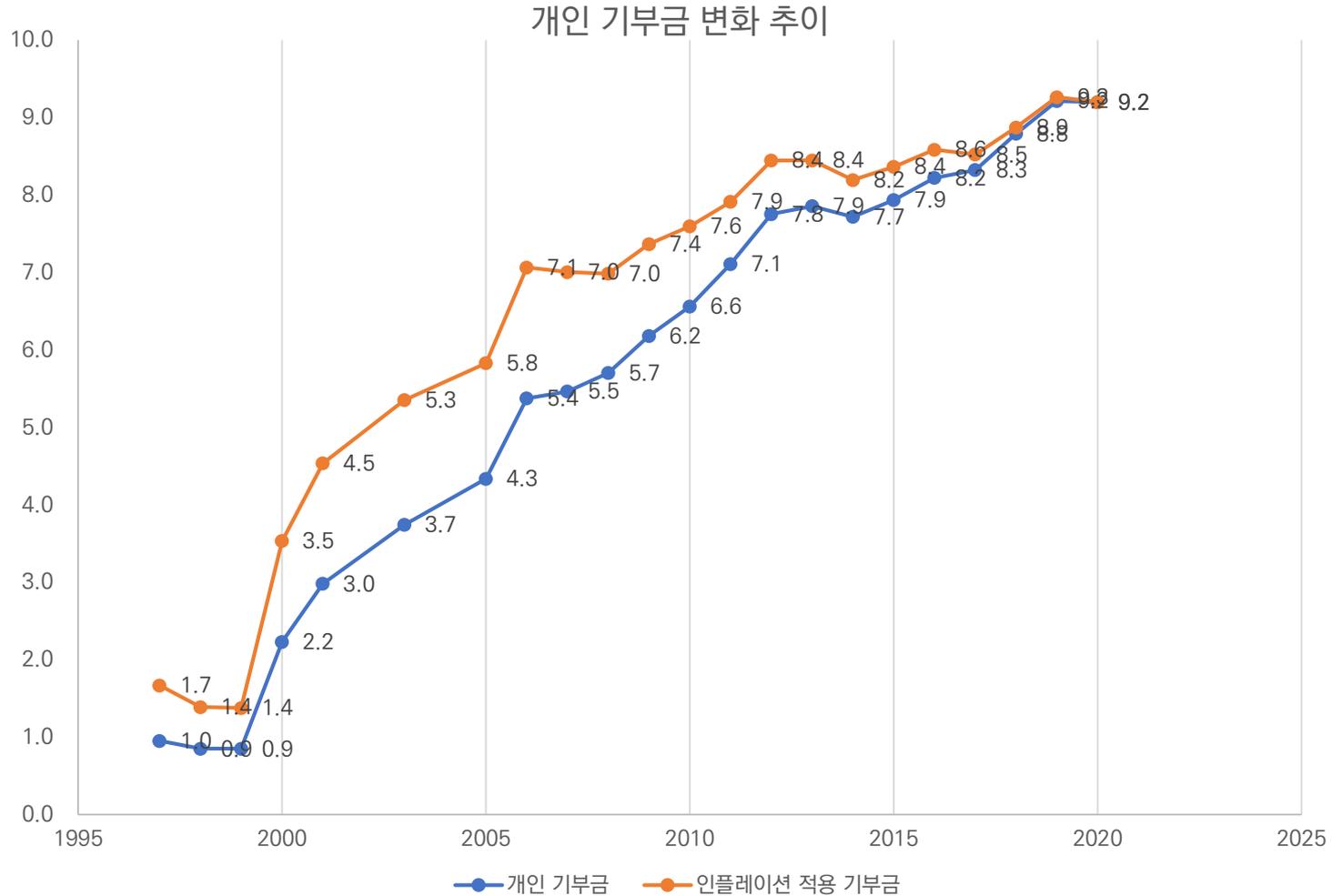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세청 통계, e-나라지표,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2부. 개인 기부

2_1. 개인 기부 총액

👉 2020년 개인 기부 총액은 9.2조 원, 2019년 9.3억 원 대비 다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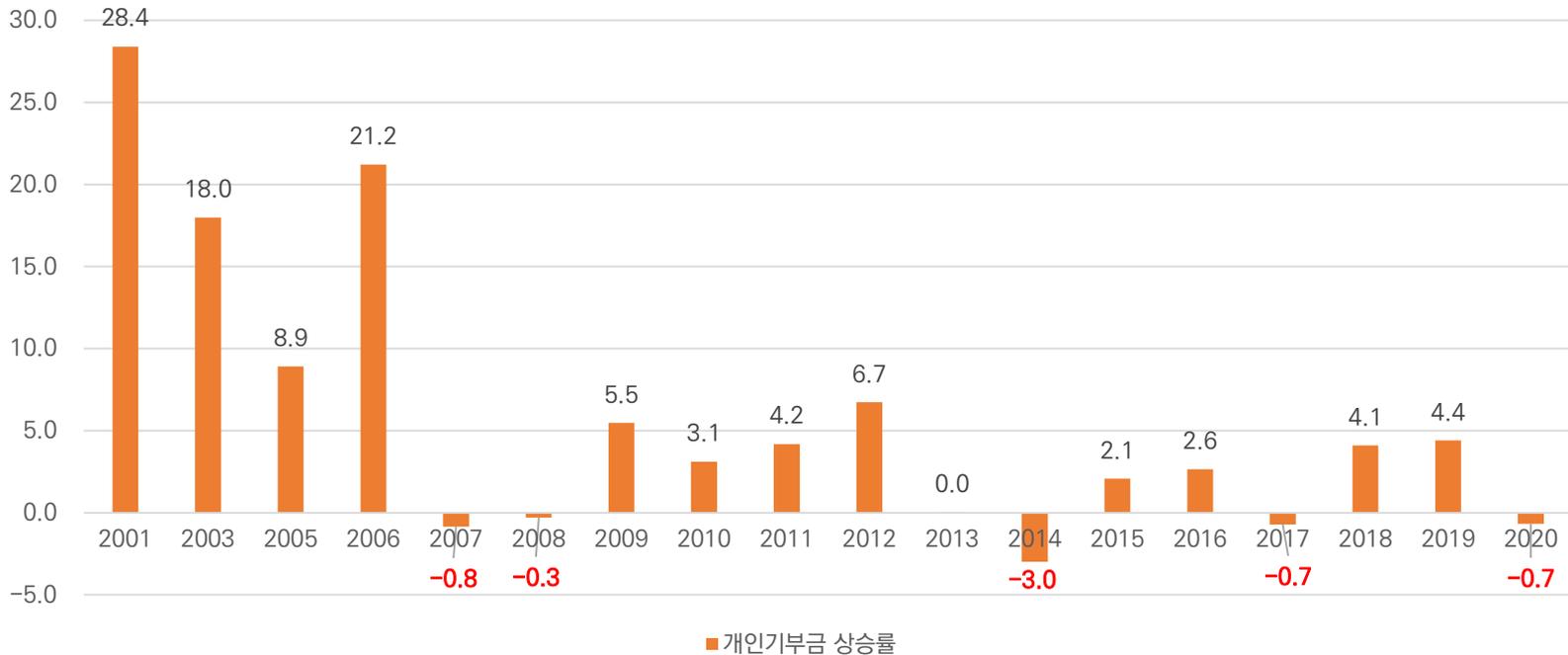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2.2. 개인 기부 총액 증감 추이

- 👛 개인 기부 총액 전년대비 상승률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이
- 👛 2000년대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하다 2013년 이후 상승률 저조
- 👛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구간은 세계경제위기 2007년과 코로나 대유행 2020년
- 👛 2013년 개인 기부 세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변경 후 기부 감소 효과
- 👛 개인 기부는 마이너스 성장 후 다음해 성장으로 회복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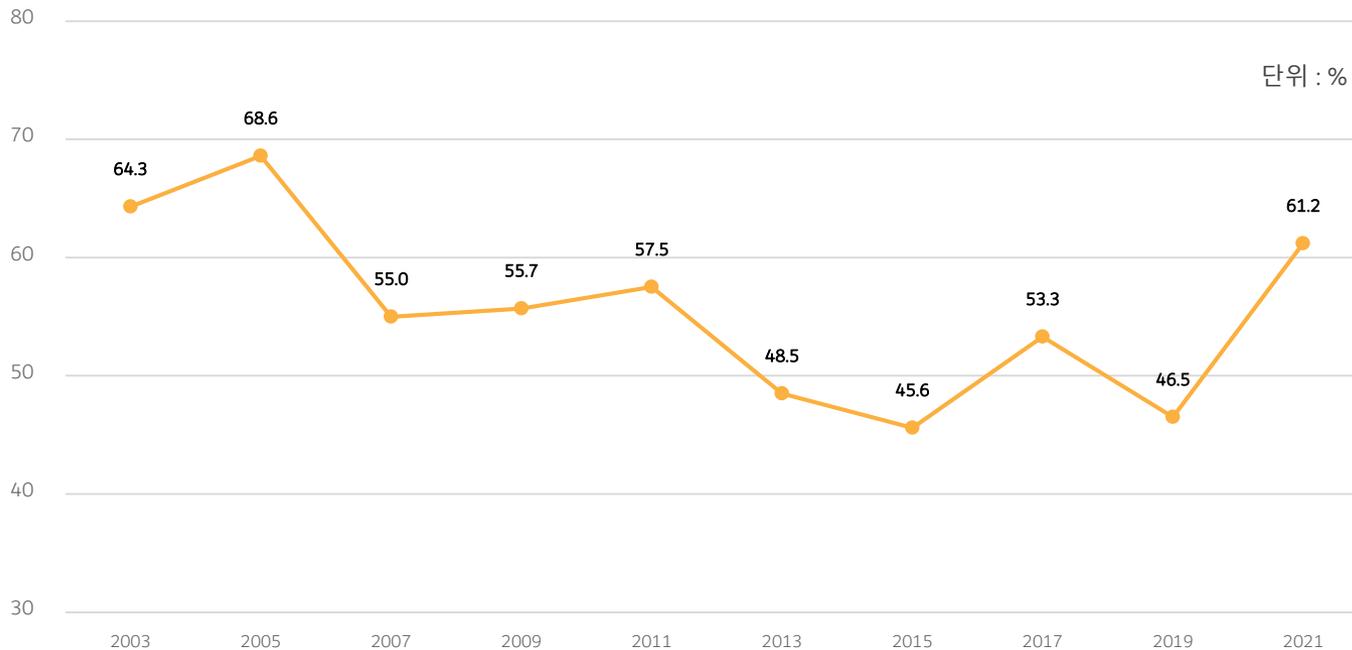
전년대비 개인 기부 상승률



2_3. 개인 기부 참여율

- 👉 지난 20년간 기부 참여율은 점차 하락 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3년 기부 참여율이 50%이하로 하락
- 👉 2021년 기부 참여율은 61.2%로 2019년 46.5%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
- 👉 코로나 대유행 재난 상황에서 기부 참여율 높음

개인 기부 참여율



출처 : 기빙코리아

*2003년~2011년은 친척, 노숙인 등 개인에게 직접 기부 포함, 2013년 이후 개인 직접 전달은 기부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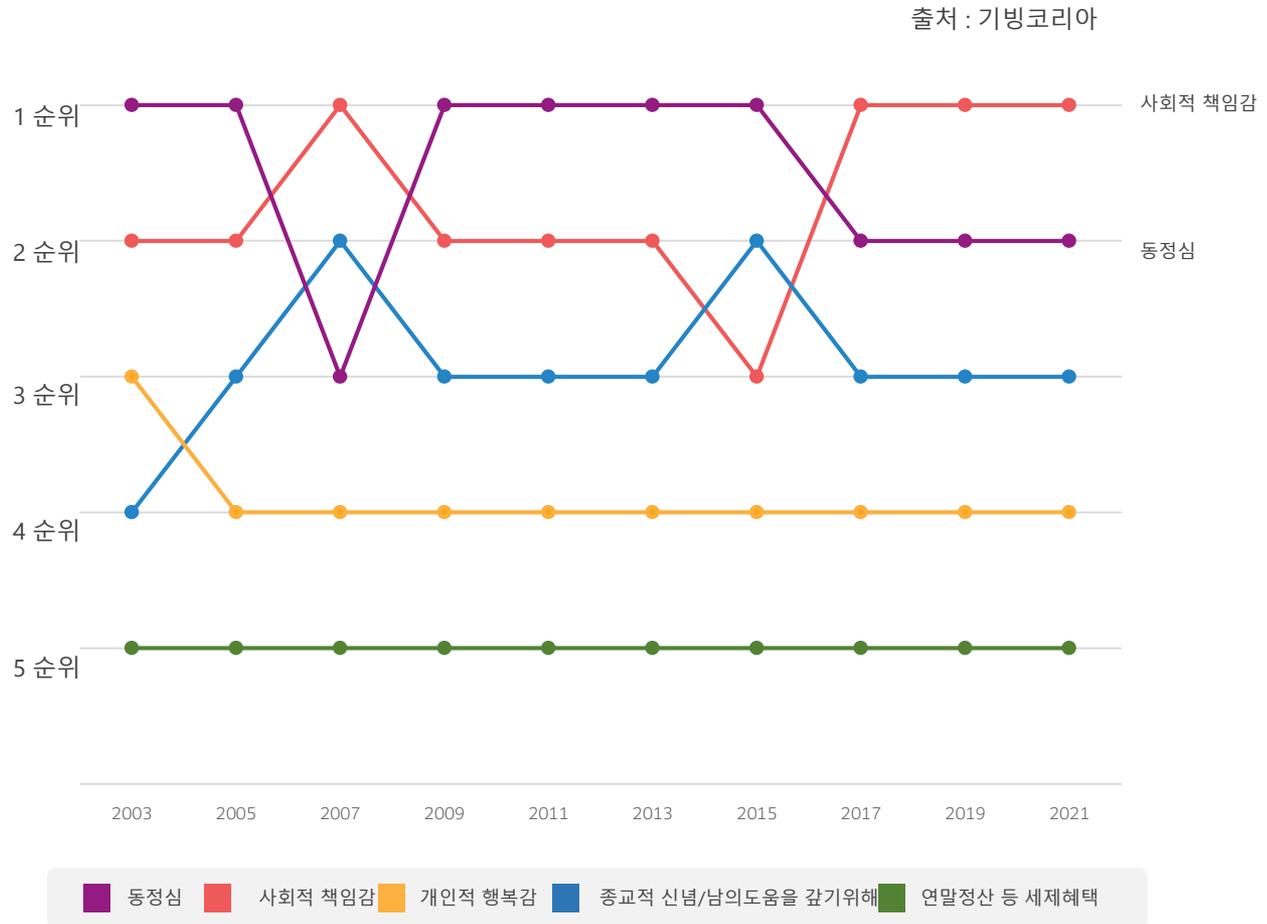
2_4.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

- 기부자 평균 기부금은 2021년 31.6만 원 (32.4만 원)으로 2019년 26.5만 원에 비해 상승.
- 기부 참여율은 낮아지고,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 가운데 2021년은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 모두 상승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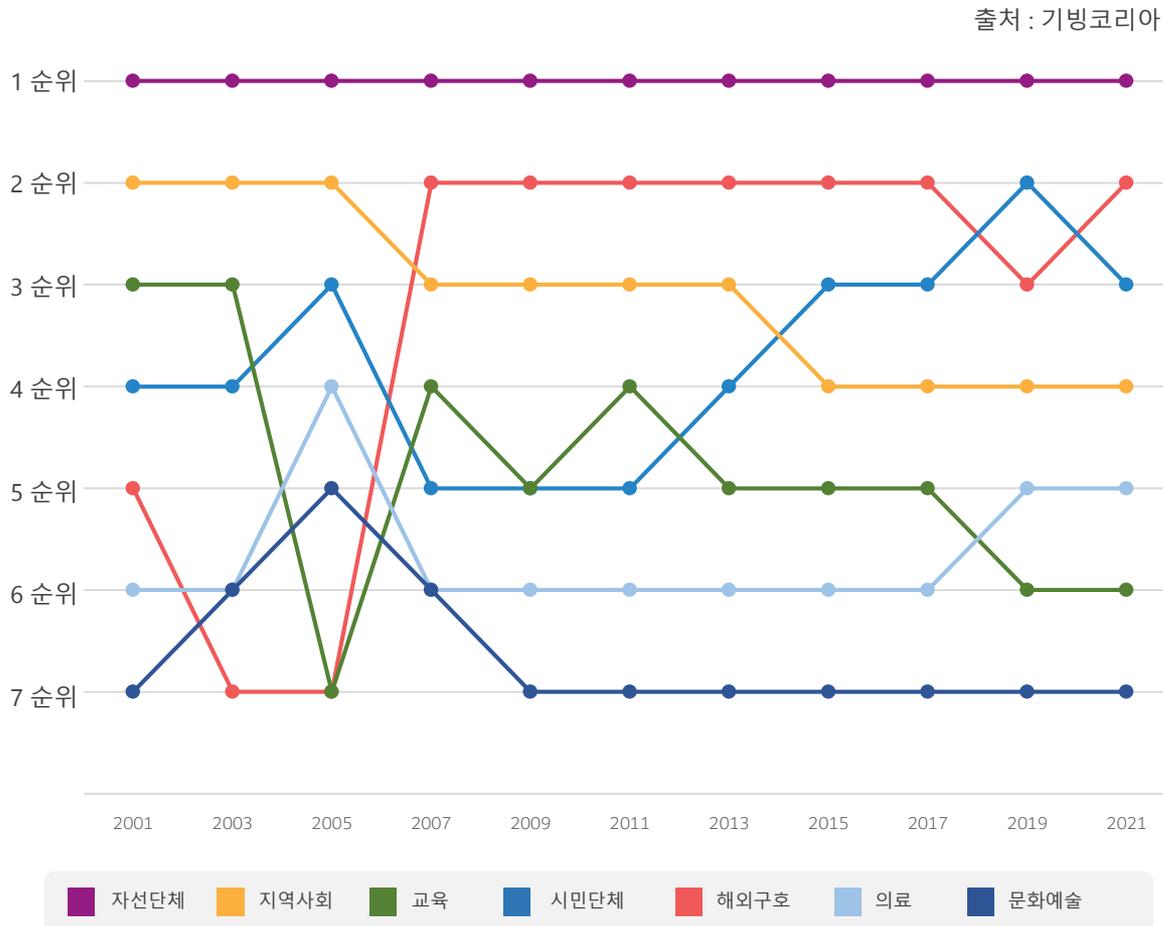
2_5. 기부 동기

- 기부동기는 대체로 동정심 > 사회적 책임감 > 개인적 행복감 > 종교적 신념 > 세제혜택 순
- 기부동기는 2000년대 초반 64.6%로 동정심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사회적 책임감 26.6%와 18%p 차이가 났으나, 2017년, 2019년은 사회적 책임감이 각각 31.3%, 30.8%로 가장 높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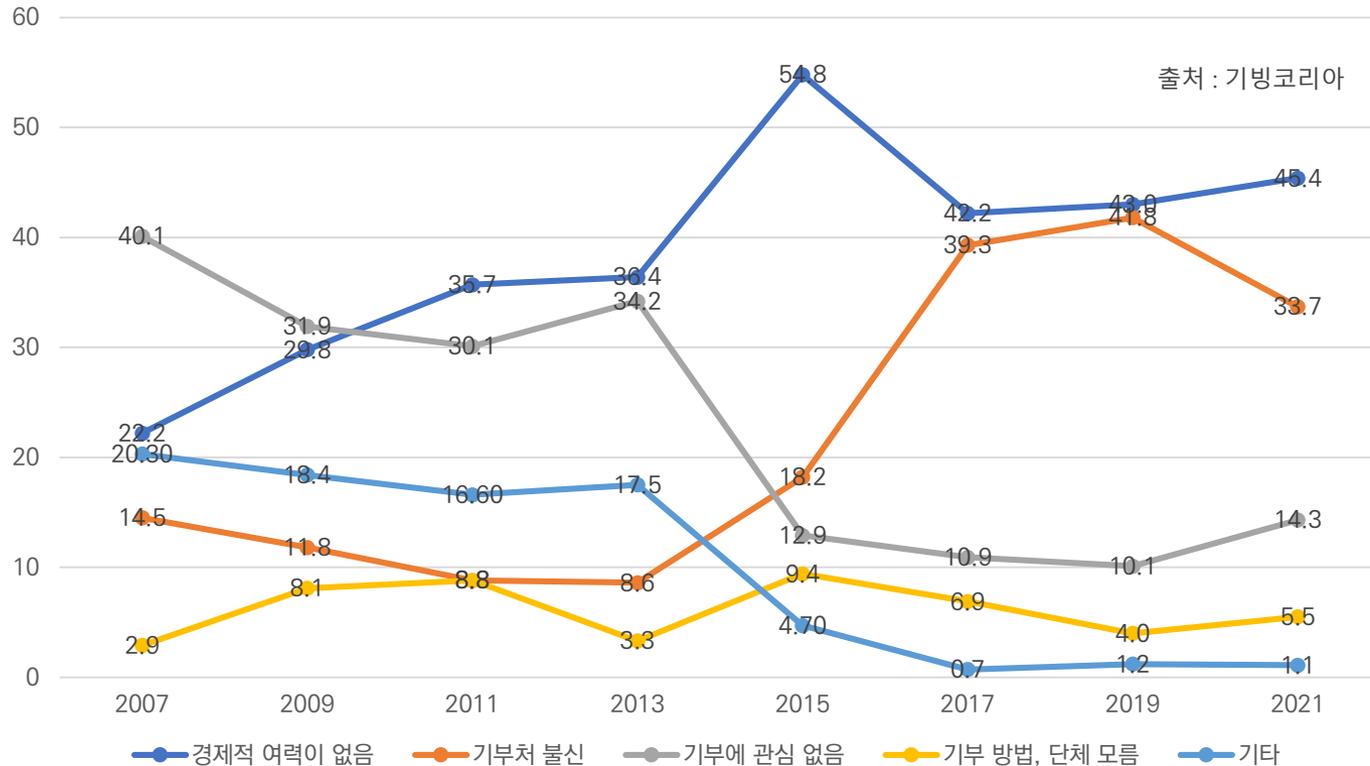
2_6. 기부처

- 기부분야 중 자선단체는 매해 월등한 1순위이며, 다음으로 해외구호, 지역사회, 시민단체, 교육, 의료, 문화예술 순.
- 해외구호는 2007년 이후 2순위로 급상승.
- 시민단체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1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순위, 2021년에는 3순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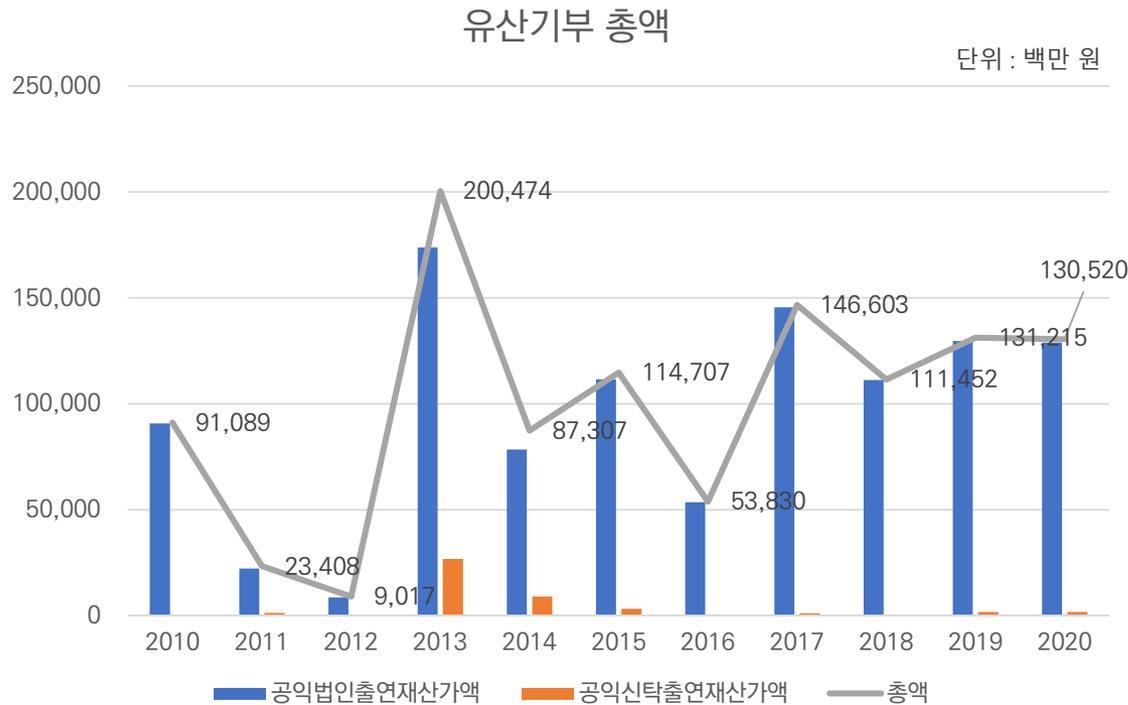
2.7. 기부하지 않는 이유

-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력 없음 > 기부처 불신 > 기부에 관심 없음 > 기부 방법, 단체 모름 순
- 기부에 관심 없음이 줄어드는 추이나, 기부처 불신 비율이 높아지는 추이



2_8. 유산 기부

- 유산기부는 상속세 신고금액 내 과세가액불산입액 중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과 공익신탁출연재산가액을 더한 값
- 즉,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상속함으로써 과세에서 제외된 금액
-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유산기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총 1,305억 원
- 해마다 유산기부의 규모가 다른 이유는 한번 유산기부가 이루어지면 많은 금액의 유산이 기부되기 때문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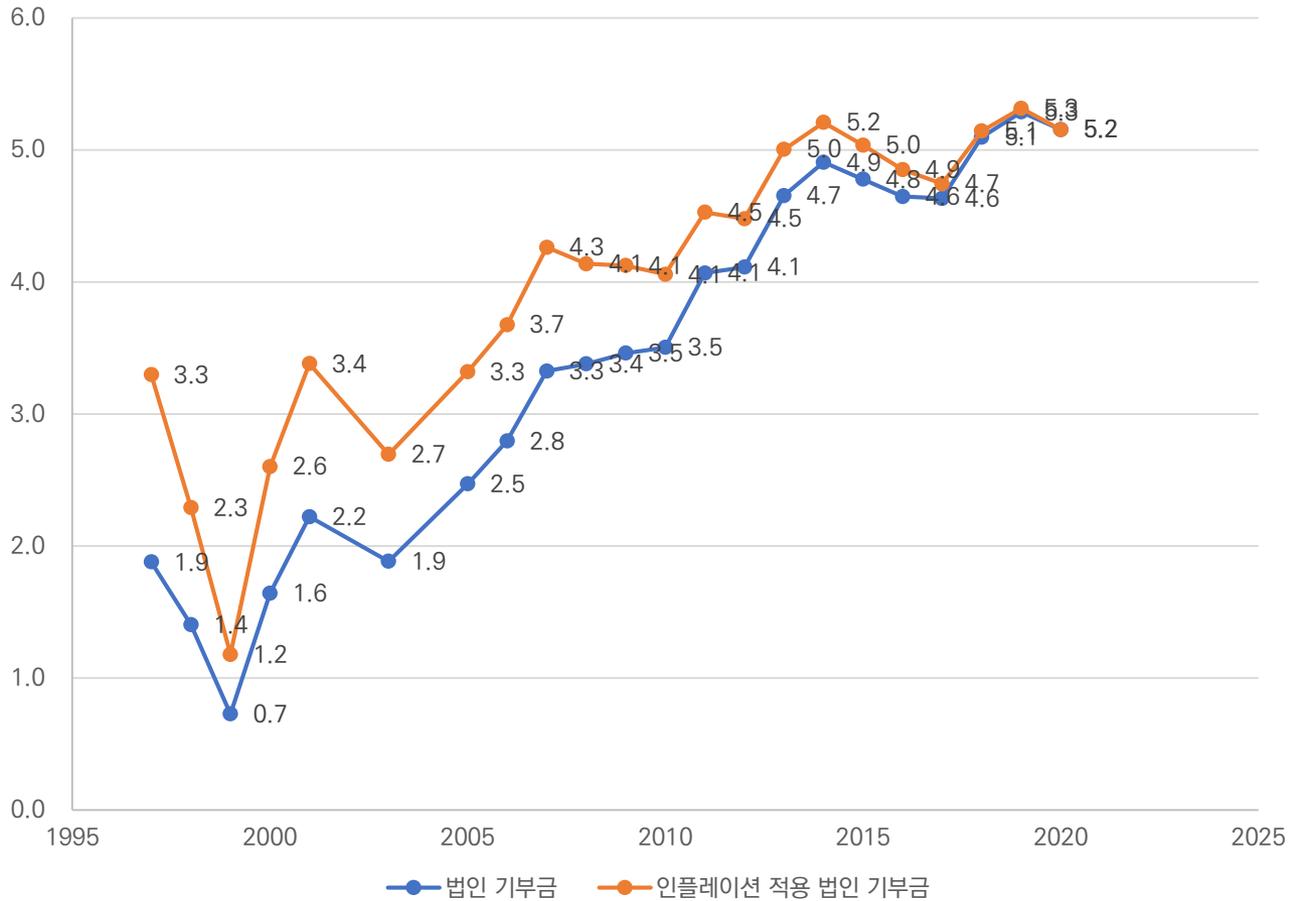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3부. 기업 기부

3_1. 기업 기부 총액

🏆 2020년 기업 기부 총액은 5.2조 원. 2019년 5.3조 원 대비 다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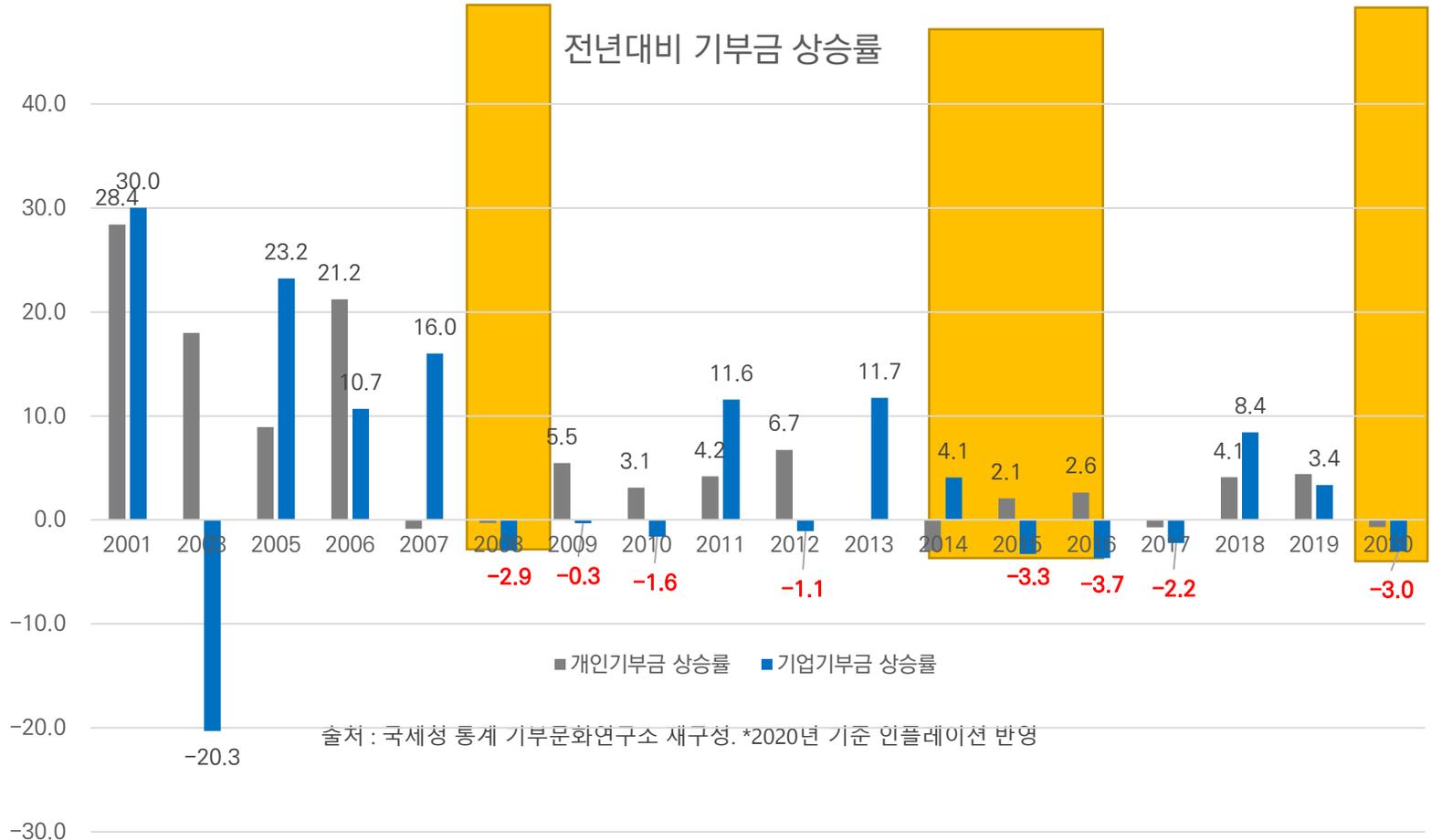
기업 기부금 변화 추이



출처 : 국세청 통계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. *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

3_2. 기업 기부금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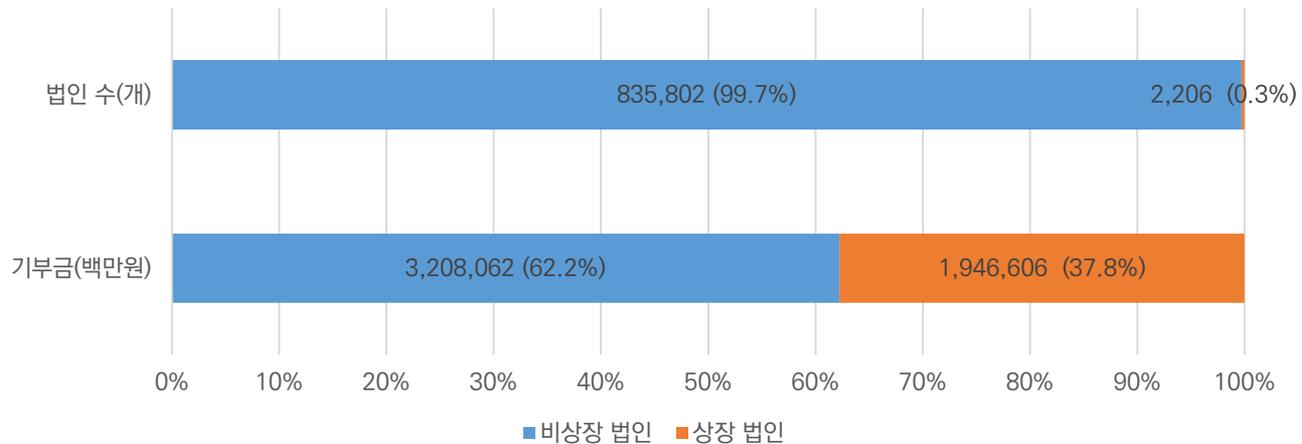
- 기업 기부금 또한 기부 총액과 유사하게 2000년대 초반, 2010년대, 2020년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
- 경제위기가 있던 2008년~2010년, 2015~2017년,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던 2020년에 3% 하락
- 기업 기부 등록폭은 개인에 비해 큰 경향
- 개인 기부금은 하락 후 다음 년도에 바로 회복되지만, 기업은 3~4년 후 회복되는 양상



3_3. 기업 평균 기부금액 :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

- ☘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은 총 838,008개. 이중 상장법인 2,206개(0.3%), 비상장 835,802(99.7%)
- ☘ 총 기부 규모는 5.2백만 원. 상장법인 3.2조 원(62%), 비상장 1.9조 원(38%)
- ☘ 상장법인의 비율은 0.3%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비율은 37.8%를 차지
- ☘ 기업당 2020년 평균 기부금액은 620만 원, 상장 기업 평균 기부금액은 8억 8천만 원, 비상장 기업은 380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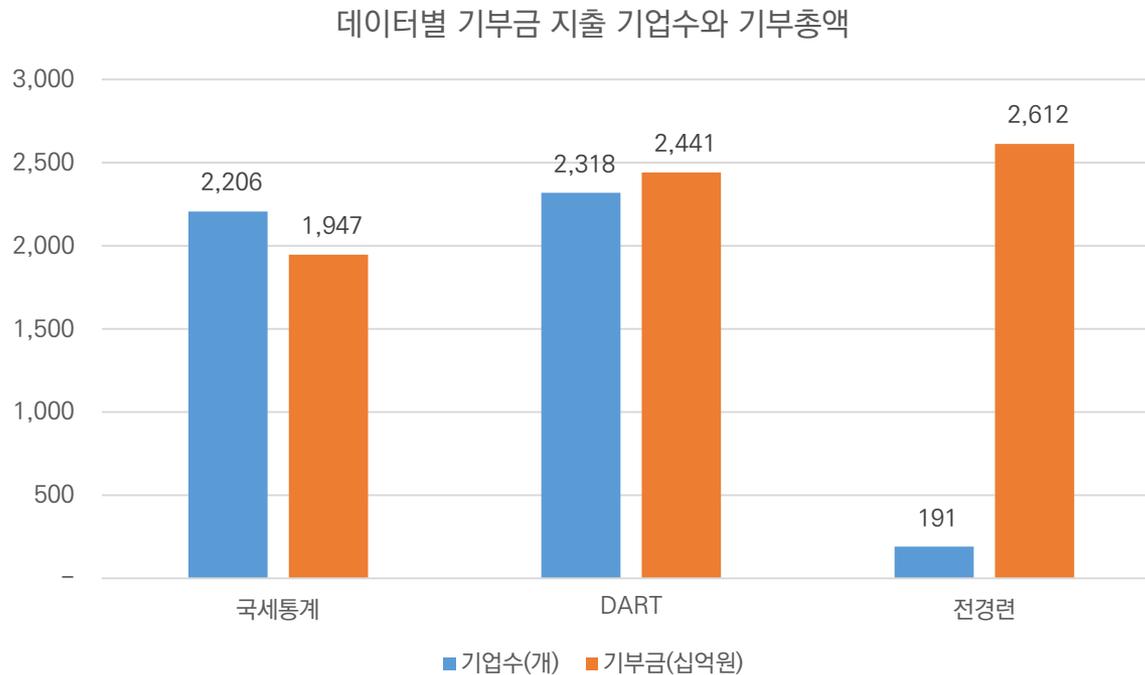
전체 법인 중 상장 법인 비율



| | 비상장 법인 | 상장 법인 | 총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부금(백만원) | 3,208,062 | 1,946,606 | 5,154,668 |
| 법인 수(개) | 835,802 | 2,206 | 838,008 |
| 기업평균기부금액(백만) | 3.8 | 882.4 | 6.2 |

3_4. 데이터별 상장기업 기부 총액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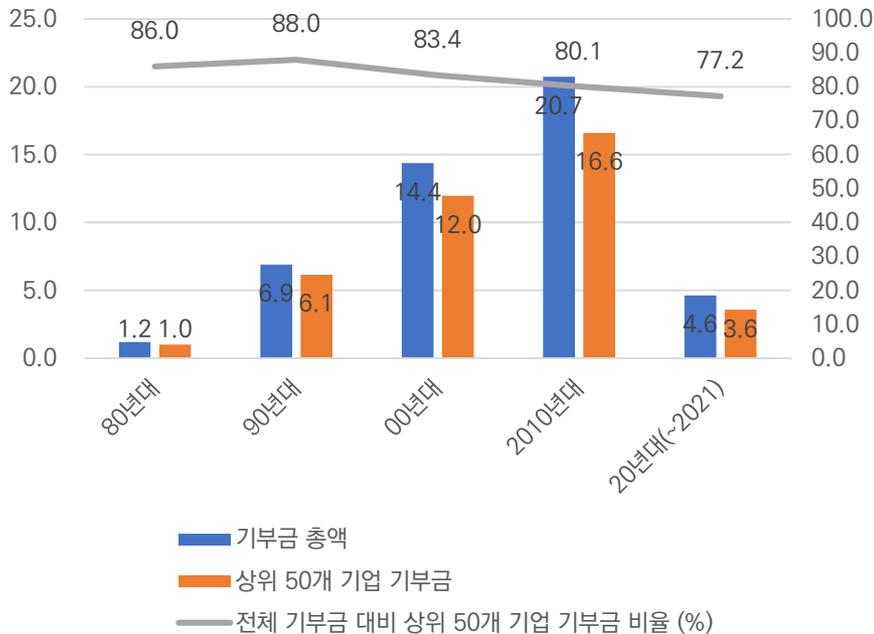
- 🍷 국세통계의 상장기업, DART, 전경련 데이터 비교
- 🍷 전경련은 회원사 191개 응답이나 기부 총액은 국세통계나 DART보다 큰 규모. 기업사회공헌 지출 비용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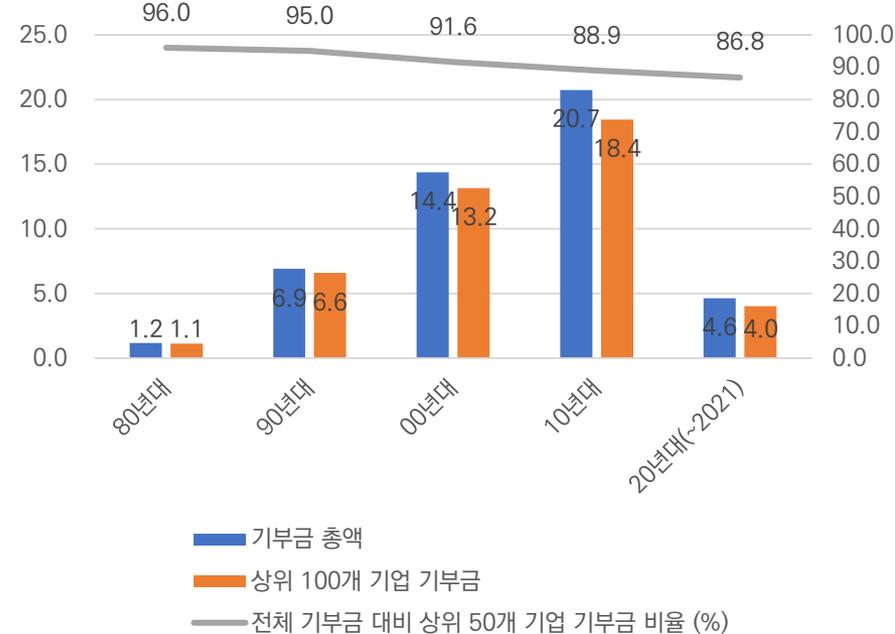
3_5. 상위 50대, 100대 기업 기부금 비율

- 총 기부금 대비 50대기업과 100대기업의 기부금 비율을 살펴보면, 2000년~2021년까지 50대 기업이 평균 81%를, 100대 기업이 90%를 차지. 즉, 39,588개 기업 중 0.13%(50개)가 81%를, 0.25%(100개)가 90%를 지출
- 상위 100개 기업은 80년대 96%, 90년대 95%, 2000년대 92%, 2010년대 89% 이며, 상위 50대 기업은 80년대 86%, 90년대 88%, 2000년대 83%, 2020년대 80%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
- 이는 50대 100대 이외의 기업 기부 비율이 좀더 확대 되고 있다는 의미

연대별 상위 50개 기업 기부금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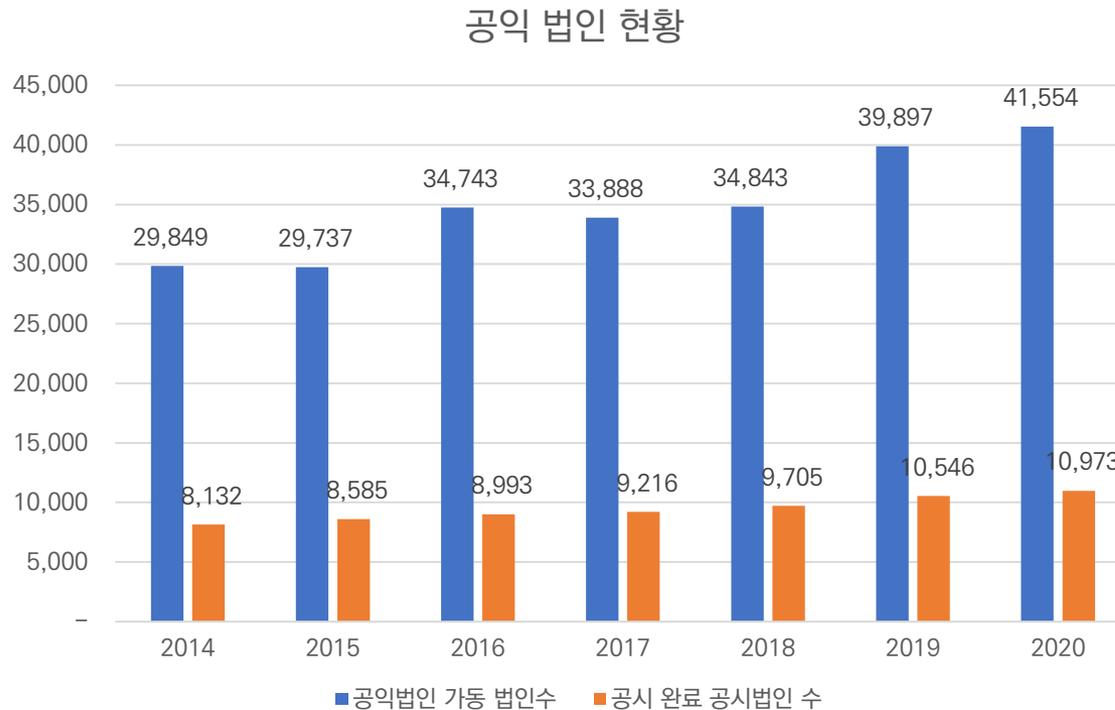
연대별 상위 100개 기업 기부금 비율



4부. 공익 법인 모금액

4_1. 공익법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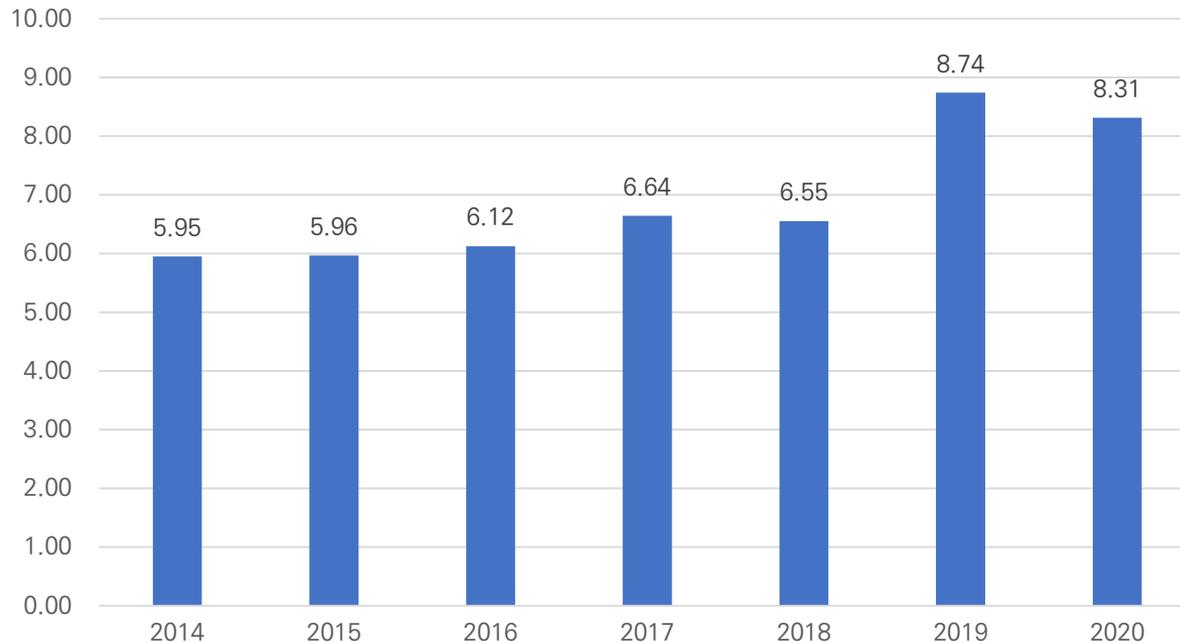
- 🍷 국내 공익법인은 2014년 29,849개에서 2016년 34,743개, 2019년 39,897개로 증가
- 🍷 2020년 기준 가동 중인 공익법인 수는 41,554개로, 이 중 국세청 공시를 완료한 공익법인의 수는 10,973개
- 🍷 2019년부터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의 대상이 자산 3억 원 또는 모금액 5억 원에서 공익법인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공시 완료 법인 수도 2018년 9,705개에서 10,546개로 확대



4_2. 공익법인 모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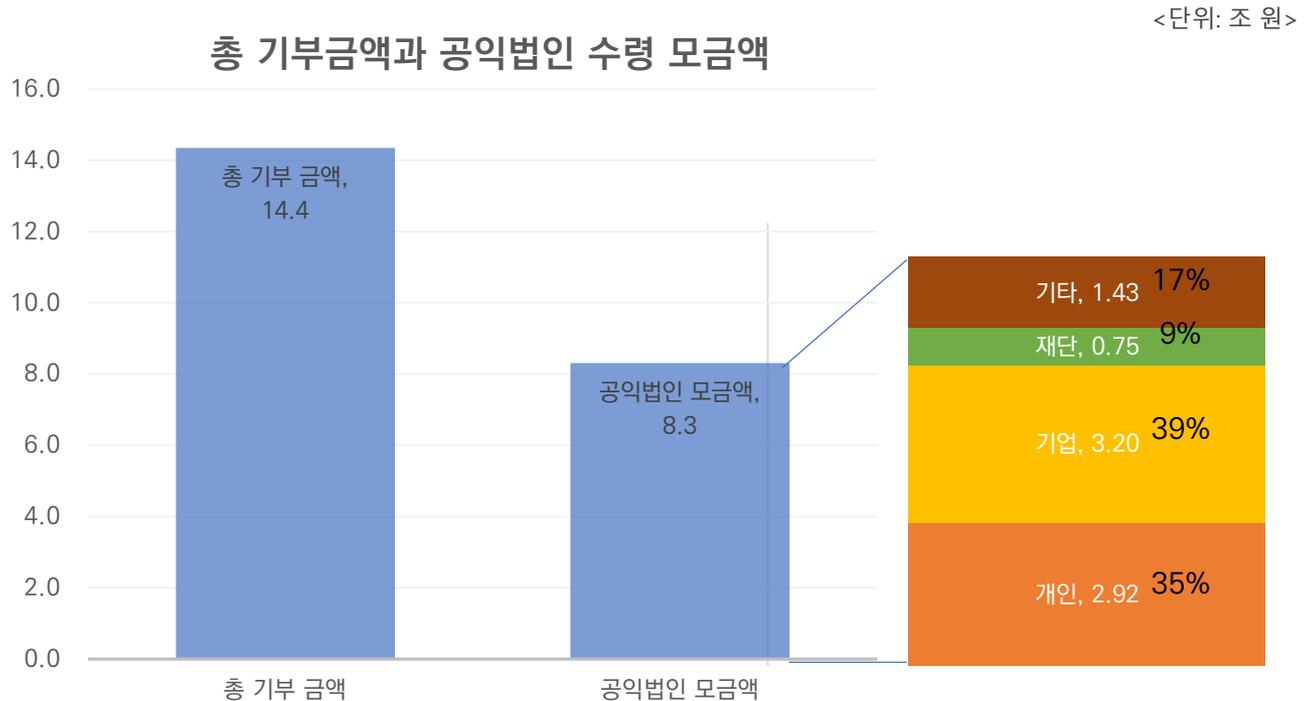
- 공익법인 기부금품 총액은 2014년 5조 9천5백억 원, 2018년 6조 5천5백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세청 공시대상이 확대되면서 2019년 8조 7천4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소 감소
- 2020년 10,973개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 총액은 8조 3천1백억 원으로, 개인과 법인이 기부금으로 신고한 14조 3천5백억 원의 57.9% 수준. 이는 국세청 공시를 완료하지 않는 법인이 완료 법인보다 그 수가 많으며, 공시를 하지 않는 단체로 개인이나 기업 기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

공익법인 모금액 총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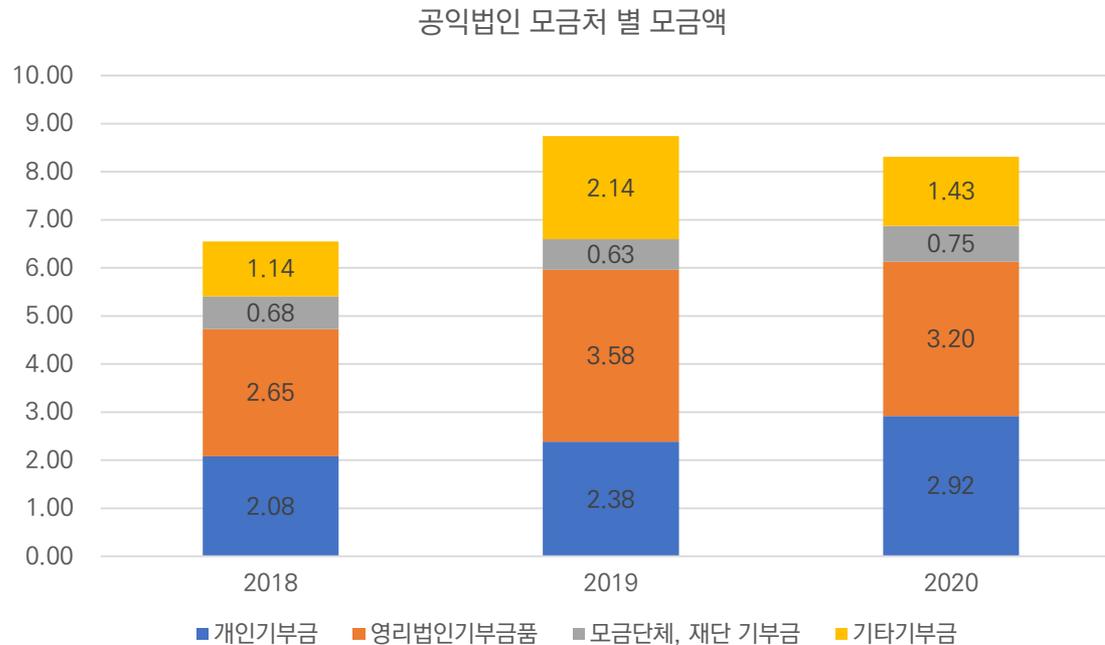
4_3. 총 기부금액 대비 공익법인 모금액

- 2020년 공익법인 모금액 8.3조 원으로 총 기부금액 대비 57.6%
- 공익법인의 모금액 비율은 개인 35%, 기업 39%, 기타 17%, 재단 9% 비율



4_4. 공익법인 모금처 비율 변화

- ☺ 개인 기부금액은 2018년 2조 8백억 원, 2019년 2조 3천8백억 원, 2020년 2조 9천2백억 원으로 점차 증가
- ☺ 기업 모금은 2018년 2조 6천5백억 원, 2019년 3조 5천8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3조 2천억 원으로 감소
- ☺ 2020년 개인 모금은 증가했으나 기업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총액은 하락
- ☺ 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 비율은 총 기부금액 대비 0.75%에 불과. 즉, 중간지원조직이나 배분 기관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





20th Giving Korea